

특별기획

누에캐릭터 '참뽕이인형' 특허

부안군,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디자인 등록... 가방걸이용과 장식용으로 쓰여

부안군은 지역특산품인 부안참뽕 홍보 등을 위해 부안 명품 누에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한 '참뽕이인형' 2건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디자인 등록이 결정됐다.

참뽕이인형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웃으며 인아주는 모습의 포근함과 사랑을 형상화했으며 가방걸이용으로 제작된 소형(12cm)은 분홍색과 연두색 2종류, 장식용(28cm)은 녹색으로 디자인해 제작했다.

판매가격은 가방걸이용은 5000원, 장식용은 1만 5000원이다.

부안군은 참뽕이인형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기념품 및 소장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부안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안 빵산업의 '참뽕이' 캐릭터와 부안미실축제 '오복이'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인형과 팬시 제품 등 기념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부안군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누에타운은 160년의 양장 역사를 지닌 '양장의 메카'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어린이·청소년 1500원이다.

한편 부안군 관내 모든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특별할인(성인 1000원 할인)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누에타운 전화 ☎ 063-580-4334·4616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의 참뽕이인형



김학주 전북농업기술원장

정읍 농업·농촌 현장 방문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김학주원장이 취임 1개월을 맞아 최근 정읍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행정을 펼쳤다.

김 원장의 이번 정읍 방문은 시군 농촌진흥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소농과 대학을 통해 농촌진흥사업의 활성화와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먼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부터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기술센터 내 주요 시설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지역농업개발 시험 연구 포를 둘러보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정읍시가 기계화 경작로와 용·배수로 등의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총 119억 원을 들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저수지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42억원을 투입해 38km의 농로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1억원을 들여 용·배수로 8km를 정비하고 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제방 보수·보강 및 여방수로 개보수, 권양기 교체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수지의 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 2개소에 7억원을 투입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인성교육 체험프로그램 제2차 운영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도인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서는 지난 22일 인성·예절교육 체험프로그램 제2차를 전주 한옥마을에서 진행했다.

제2차 인성·예절교육 체험프로그램은 김제여자중학교 1,2,3학년 위기(가능)청소년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옛 우리의 전통가치와 예의범절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다.

예절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생활예절, 전통배례법, 전통훈례법, 다례예절, 식사예절, 한복 입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인성교육프로그램에서는 명상을 통한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비빔밥 체험과 사물놀이(기본장구장대배우기), 한지를 사용한 손거울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인성·예절교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34명의 위기(가능)청소년들이 인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실생활속에서 예절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재미있고 실질적인 예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장 찾는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눈부신 내일을 위한 행복한 배움 나눔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중 매주 운영 중인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오는 25일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평선아카데미'를 추진한다.

올해로 제4회째를 맞는 '찾아가는 지평선아카데미'는 만경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학술진흥센터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사인 박소연 강사가 '나의 미래를 위한 금융 & 비전 스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26회 향토자유수호 추념식이 24일 내장산 국립공원 내 향토자유수호 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내장산 국립공원 내 기념비서 향토자유수호 추념식

6.25 때 희생된 정읍지역 순국지사 41인의 넋 추모

제26회 향토자유수호 추념식이 24일 내장산 국립공원 내 향토자유수호 기념비 앞에서 열렸다.

이날 추념식은 6.25 때 나라를 위해 산화한 국민방위군 전우들의 넋을 달래는 합동 추모제로 마련됐다. 당시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국민방위군에 자원입대하여 경찰과 합동작전을 벌여 내장산 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다.

내장산 향토자유수호 기념비는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해

희생된 정읍지역 순국지사 41인의 넋을 추모하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정읍 향토자유수호비보존회(회장 김병주가) 주관한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이우실 익산부흥지정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향토자유수호 희생자 유가족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향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들의 영원을 안식과 명복을 빌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생기 시장은 추도사에서 "이 곳에 잠들어 계신 향토자유수호 전사자들의 열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이 가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추앙되어야 할 정신적 가치다"며 "향토수호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향토자유수호비보존회는 호국 영령들의 혼을 위로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합동 추모제를 가져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마을번호사 1주년 기념 행사

운영성과·향후 발전방안 논의

김제시는 24일 오전 11시 김제시청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번호사 제도 시행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진식 김제시장, 박귀원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장, 황선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장, 김제시 마을번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마을번호사 표창과 마을번호사 1년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김제시 마을번호사 이야기 등 긴급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을번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무변촌(無辨村) 지역 읍면동을 연계해 주민들이 방문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제시는 2015년 9월 10일 마을번호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 전라북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와 전국에서 최초로 기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0월 26일 첫 시행하여 매월 1회 법률상담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시행 8개월만에 전국 최우수 모범 지자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마을번호

사 메카로 부상하는 등 짧은 기간에 법률서비스 제공을 넘어 시민들의 희망이자 든든한 대변인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에 김제시는 지난 1년간 마을을 꾸준히 방문하여 지성감민(至誠感民)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근한 동네 변호사 이미지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김대호, 장중석, 유수연 변호사에게 모범 마을번호사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오늘 행사가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의 문턱을 낮추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권익 향상과 법률 복지를 위해 마을번호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서 귀농귀촌학교 수료식

지난 22일 정읍시에서 지원한 2016년 제4기 정읍시귀농귀촌학교 운영 수료식이 30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신대인읍 소재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에서 열렸다.

3주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과정은 전북귀농귀촌학교(대표 이준성)가 주관했다. 시와 전북귀농귀촌학교는 지난해부

터 매 기마다 30명씩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순환 선발하여 농업에 대한 기본지식에서부터 심도 있는 체험 실습까지 병행하는 도제식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물론 빠른 시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 등을 제시하고 교육,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생 대표 임연준 씨는 "정읍은 농업하기에 천혜의 기후와 지적적 이점을 가진 곳으로, 귀농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다"며 "이번 교육과정 또한 귀농인에게는 최고의 맞춤형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프랑스 학생 20여명 부안찾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정원문화 체험

프랑스 케르니/플롱베 레 디즈 농업전문학교 학생 20여 명이 지난 22~23일 부안을 찾아 한국의 정원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프랑스 학생들의 부안 방문은 평소 한국정원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정원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한국의 대표적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가 작업·실습을 통해 한국정원의 우수성·독창성을 배우고자 마련됐다.

1박2일 일정으로 부안을 찾은 프랑스 학생들은 '너에게와 부안 공공공수처리장 향기 나는 블라인드 가든' 등을 둘러보고 졸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해남이 감삼 및 신우대 미로 숲 조성 등을 둘러봤다. 너에게로는 상권과 도시재생, 미래가 요구하는 도시문화에 초점을 두고 꽃과 나무로 생태축을 만들어 도시가 녹색으로 소통하며 생명을 길러내는 매개체로 성장해 나갈 수준 높은 예술정원이다.

너에게로 안에는 특산종인 부안 비람꽃과 미선나무, 부안호랑가시 등이 식재돼 품격을 높이고 부안 공공공수처리장 향기 나는 블라인드 가든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민·관광객의 인력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도시재생 등을 위해 조성됐다.

향수병 모양의 블라인드 가든에는 로맨틱한 향이 일품인 작약꽃과 부드럽고 은은한 향의 천리향

달콤하게 향이 피어오르는 벨가 못, 달콤한 향의 은복서, 싱그러운 향의 아이리스 등을 식재돼 있으며 눈을 감고도 코끝으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블라인드 정원이다.

프랑스 학생들은 너에게로 등을 둘러보면서 소박하지만 품격 있고 아담하면서 정감 있는 한국정원의 참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즐거워했다.

이어 학생들은 졸포만 갯벌생태공원 등에서 우리 나라 3대 해남이로 유명한 변산반도 해남이를 감상하며 'formidable(엄청난·놀라운)'을 연발 활용할 장만에 감탄했다.

23일에는 졸포만 갯벌생태공원 인근 주빈 등과 함께 생태공원에 신우대 미로숲 조성 체험을 하고 한국의 정원문화를 체험했다.

프랑스 케르니/플롱베 레 디즈 농업전문학교 한 학생은 "특별한 하나하나의 선이 살아 있다. 예술적인 부분과 원예적인 부분이 아주 잘 어울리게 살려냈다"며 "부안이 굉장히 작은 도시 같았는데 비닷가 마을이 도시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놀랍다. 부안의 정원들은 하나하나 디테일이 살아 있다. 모두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르게 풀 하나 나무 하나 각각의 의미가 있어서 상징성이 있어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프랑스 케르니/플롱베 레 디즈 농업전문학교 학생 20여 명이 지난 22~23일 부안을 찾아 한국의 정원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프랑스 학생들의 부안 방문은 평소 한국정원에 관심이 많았던 프랑스 학생들에게 한국정원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한국의 대표적 가든 디자이너 황지해 작가가 작업·실습을 통해 한국정원의 우수성·독창성을 배우고자 마련됐다.

1박2일 일정으로 부안을 찾은 프랑스 학생들은 '너에게와 부안 공공공수처리장 향기 나는 블라인드 가든' 등을 둘러보고 졸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해남이 감삼 및 신우대 미로 숲 조성 등을 둘러봤다. 너에게로는 상권과 도시재생, 미래가 요구하는 도시문화에 초점을 두고 꽃과 나무로 생태축을 만들어 도시가 녹색으로 소통하며 생명을 길러내는 매개체로 성장해 나갈 수준 높은 예술정원이다.

너에게로 안에는 특산종인 부안 비람꽃과 미선나무, 부안호랑가시 등이 식재돼 품격을 높이고 부안 공공공수처리장 향기 나는 블라인드 가든은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민·관광객의 인력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도시재생 등을 위해 조성됐다.

향수병 모양의 블라인드 가든에는 로맨틱한 향이 일품인 작약꽃과 부드럽고 은은한 향의 천리향



백산면 새마을부녀회가 음식부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백만원을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

백산면 새마을부녀회 장학금 기탁

김제시랑장학재단에 1백만원

김제시랑장학재단(이사장 이진식)은 24일 올해 지평선축제에서 백산면을 대표하는 지역특색 음식 제공을 위한 음식부스 운영을 담당했던 백산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점자)가 음식부스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1백만원을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산면 새마을부녀회는 백산면민의 날에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음식부스 운영, 연말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저소득층 김장 담아주기, 분기별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전달, 환경정화활동등 이웃사랑 실천 및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유점자 회장은

"그동안 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으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자금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이번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은 더 나은 김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지역인재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진식 김제시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금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2007년 8월에 설립한 김제시랑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최고액인 2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및 과감한 장학금 지원 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